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1>



곁에 있는 사람이 스승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해인가 여름에 흉수가 나서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있었는데 항상 말성을 부리는 육군비구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마구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자연히 소지품들이 물에 휩쓸려 동등 떠다니게 되었고, 그들이 거침없이 다니는 바람에 초목들과 곤충들이 마구 짓밟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은 부처님의 제자이고 즐거운 스님이면서 어찌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겉으로는 바른 법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밭도 없이 돌아다니니 어찌 바른 법을 지키는 수행자라 할 수 있는가. 신자들이 보시한 물건들이 물에 휩쓸려 가고, 곤충들을 밟아 죽이고 있지 않은가. 외도들도 우기 석 달 동안은 안거를 하는데 이들은 어찌 그런 밭도 없던 말인가. 벌레와 새들도 동지와 같이 있어 머물거늘 어찌 이들은 그런 밭도 없던 말인가.”

사람들의 비난이 부처님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육군비구들을 꾸짖고 난 뒤에

아오는 대로 밥 먹는 곳을 소재하고 자리를 펴고 물그릇을 갖추고 밥 씻는 그릇과 밥 담은 그릇을 갖추어 놓기로 합니다. 대중은 제각기 밥을 가지고 와서 밥 먹는 곳에 놓고서 많이 얻었거든 미리 떨어두고 알맞으면 그대로 먹으며, 밥을 다 먹었거든 잡자고 방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말이 필요 없으니 결식에서 돌아와 밥을 먹는 동안,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치우는 동안에도 절대로 서로 말을 건네지 말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음식 때문에 피로하지 않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마련해 놓고 규칙에 따라서 안거하며 자자를 마쳤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조용하게 자기 수행에 매진할 수 있었을까요? 가급적 다른 이를 참견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 한 끼만 먹고 석 달 간 오직 자신의 수행만을 위해 땅을 출고난 비구스님들은 안거를 마친 뒤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의외로 부처님은 근심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은 맛대로 그런 행동들이 즐겁다고 여기겠지만 그것은 괴로움이다. 맛대로 근심 없이 지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벽 근심스러운 시간이었다. 너희들이 함께 머물고

안거기간 수행에 전념코자 묵언한 제자들에게 “도반과 대화하며 가르치고 일깨워라” 꾸짖어

이렇게 새로운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계절의 구분 없이 돌아다니지 말라. 비구들은 여름 석 달 동안 안거해야 한다.” (사분율)

안거는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던 행사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석 달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사는 덕분에 비구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코실라국에서 안거를 시작한 비구스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거하는 동안 음식 때문에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가급적 정진하는 데에 온 정신을 쏟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안거 기간 동안에는 탁발하러 나가는 것도 번거롭고 음식을 얻어서 돌아온 뒤에 음식을 먹고 치우는 동안에 행어 불필요한 말이

라도 하게 되어 수행에 방해가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렇게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안거 동안에는 서로 말하거나 예배하거나 문안하는 일은 하지 말시다.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가서 결식한 이는 돌

리낸 모습들을 돌아보아라. 마치 원수지간 같지 않더냐? 싸우려고 땀벼드는 흰 원소와 조금도 다를 바 없구나. 내가 그토록 무수한 방편으로 비구들에게 서로 가르치고 서로 말을 듣고 차례로 깨우쳐 주라 이르지 않았더냐? 그런데 어찌 하여 너희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한 짓은 법답지 못한 짓이다.” (사분율)

안거에 임하는 수행자들의 결심은 뜨겁습니다. 장마철의 녹진한 습기마저도 일거에 떨러버릴 만큼 뜨거운 열기가 흘러넘칩니다.

회무를 향해 고요히 말없이 들어가는 시간은 개인이 자기 참존재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치열하게 수행하는 그 시간조차도 끊임 없이 도반과 대화를 나누며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나라가 오래도록 번영하려면 한결같이 화합해 자주 회의를 갖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출가자들이 자주 성의껏 모이고 많은 이들이 출석하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결정을 내려야 승가의 생명력이 길어진다고 하신 <대반열반경>의 가르침은 사판(事判)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판(理判)의 법제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 이미형(동국대학교원역경위원)



말과 먹는것을 최대한 줄이고 항상 부지런해야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종안 스님.

중생심으로 보면 모두 ‘헛 것’



지상 백고좌

종안 스님

(곡성 태안사 원각선원 선덕)

종안(宗顔·82)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동리산 태안사는 예부터 선지식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태안사는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동리산파의 중심사찰이다. 개산조 혜철 스님의 부도인 ‘적인선사조문청정탑(寂忍禪師照輪淨塔·보물 제273호)’도 유명하지만 2003년 열반한 청화 스님의 자취도 아직 생생하다. 초여름 땀방울을 피해 입주문을 지나치려는데 별 떼가 주런 아래로 맴돌고 있었다. 입주문 기둥 속

에 벌집이 들어선 모양이다. 꿀을 찾는 벌 떼처럼 불도를 깨치려 모여 들었을 동리산파의 옛 스승들이 이랬을까. <화엄경> 십지품에는 천인(天人)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간청하면서 “목마른 이 감로수를 그리워하듯/ 굶주린 이 좋은 음식 생각하듯/ 벌 떼가 단 꿀을 찾듯이/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감로법문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묘사한 구절이 떠올랐다. 천년이 지난 오늘날도 태안사 선방에는 훨훨다 자성을 밝히고 확실히오하기를 간절히 서원하는 남자들이 앞다투 방부를 들인다.

딱나무 껍질로 신 삼아 신고...

태안사의 부속암자인 가운암은 대웅전을 지나 작은 개울을 건너 대숲 사이에 숨어 있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그야말로 토굴이었다.

요 며칠 비가 온 뒤여서 개울물 소리는 속세의 번뇌까지 모두 쓸어버릴 것처럼 시원했다. 10여 년 전 청화 스님이 지었다는 이 암자는 슬레이트 지붕에 3칸짜리 누옥으로 전기만 간신히 들어오는 낡은 토굴이다. 1칸짜리 작은 선방과 스님의 처소가 전부였지만 몇 해 전부터 혼자 힘으로 조금씩 규모를 늘려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가지런한 마당이며 채마밭이 단정한 수행자의 토굴이라는 느낌 그대로였다. 동안거는 대중선방에서 수행하지만 하안거는 이곳에서 난다고 했다. 하루 8시간을 정진하

는 젊은 수좌들에 비해 무심도덕 정진하는 종안 스님 수행근기가 대중생활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종안 스님은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깨끗한 허리에 자연로운 음성으로 기자를 반겼다. 장마가 계속 되던 차에 모처럼 해가 낫던 이날, 스님의 처소에 는 습기를 없애려 군발을 땀다며 마루에서 손님을 맞았다. 이른 세 명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기도 비좁은 마루였다.

“나야 뭐, 늘 그냥 그대로지.”

무심도인(無心道人) 종안 스님은 안부를 묻는 기자에게 자연 그대로 더불어 살려 노력하는 것 말고 별다른 것이 없다며 ‘허허’ 하고 웃었다. 82세라는 세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종안 스님은 이번 하안거도 여지없이 방부를 들고 새벽 2시부터 하루 12시간 이상을 참선에 매진하고 있다.

그만큼 스님은 사중과 선방수좌들의 사표로 귀감이 되고 있었다.

종안 스님은 누구라도 말을 잘 하지 않는 분이 다. 이번 겨울 같이 나기 위해 스스로 자청했다. 시자 스님(법명을 물었지만 그조차 대답하기를 사양했다)과의 대화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걸은 짙게 기자와 시선을 맞추며 “말이 필요 없어서”라고 웃는다. 기자에게는 그나마 “찾아온 손님을 그냥 내칠 수 없어 맞았을 뿐”이라고.

시자스님이 내은 시원한 감시초차를 입안에 머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입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산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길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12월 3일~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12월 9일~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12월 10일~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 출발일 :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탁실라-페샤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미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 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입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을

5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5년 12월 12일 - 12월 16일 (5일간)
- 장소 : 인도 티벳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
-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 (전옥스님 061-662-1607)

급었다. 선반위에 얹혀놓은 짚신 한 켤레가 눈에 띄었다. 짚신 다니무 껍질과 무명천. 짚을 섞어 엮은 짚신이었다.

스님은 "예전 도인들은 손수 짚신을 삼아 신었지"라면서 짚신 한 짚을 집어 들었다. 여름에는 이렇게 손수 만든 짚신을 신는다고 했다. 언뜻 보기에도 단단한 매듭에 깔끔한 마무리는 수십 년 다녀온 솜씨다. 종안 스님은 짚신의 내력을 '육바라밀 짚신' 법문으로 천천히 들려 주었다.

"신총이 좌우에 37각씩 매듭진 짚신의 율은 육바라밀의 상징이여. 짚신 주둥이는 보시, 가운데는 지혜, 발바닥은 정진, 짚신 굽은 선정, 무명천으로 둘러 묶은 신총은 지계, 돌기총은 인욕이지"

보살이 되고자 하는 수행자들의 여섯 가지 덕목이 신 한 켤레에 모두 담겨 있다니 스님의 해안에 그저 마음이 숙연해질 따름이다. 널리 자비를 베푸는 '보시', 청정함을 지키는 '지계', 탐욕을 끊고 참는 '인욕', 게으르지 않는 '정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 사악한 마음을 버리고 참 해안을 구하는 '지혜'까지 대승불교의 실천행인 육바라밀은 스님의 오랜 수행역정을 대변하고 있다.



종안 스님은 두타행때 삿갓을 쓴다.



세수 82세인 지금도 하루 12시간 이상 참선하는 종안 스님.

80년대 중반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고행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무작정 길을 나섰다. 삿갓에 석장을 짚고 목직지도 없이 세상을 주유했다. '두타행(頭陀行)' 때도 스님의 발에는 '육바라밀 짚신'이 있었다. 자신만의 안목으로 12두타를 정하고 고행의 길을 나선 것이다.

12 두타행으로 새롭게 눈 떠

"첫 번째 묵언해야 해, 두 번째는 장좌를 하지, 세 번째는 1종식(一種食 하루 한끼만 먹는 것을 하되 추녀 바깥에서만 먹어야 해, 아침 한때를 얻어먹는데 밥을 달라는 말을 못하거나 죽비를 쳐요, 죽비소리에 주인이 나오면 바리때를 내립니다. 네 번째가 7개식입니다. 7집에서 얻어 한 때를 먹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완전히 인적이 끊어지고 아무워지면 부분 앞에서 무상관(無常觀 : 온갖 것의 무상함을 관하는 선정법), 여섯 번째는 목적이 없이 하루 종일 걷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따지지를 않고 발길 닿는 데로 가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깊은 모자(삿갓)를 쓰고 하늘을 안 보고, 아홉 번째는 단발로만 다녀

요, 열 번째는 한번 밟은 길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열하나의 손수 만든 짚신을 신고, 열두 번째는 모든 두타를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걷는 겁니다. 이게 다 내 생각으로 한거지, 조사 스님 흉내 내고 한 건 아닙니다."

덕유산 은신암 토굴에서 남원을 지나 곡성에 이르렀을 무렵 두타행을 멈췄다. 20년도 더 된 얘기다.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공부하는 아주 최고로 좋았어요. 그 뒤로 공부도 꾸준했어,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직 그런 걸 하는 이는 못 봤어요."

종안 스님은 불혹의 나이에 출가했다. 늦은 발심이었던 **<초발심자경문>**의 '마음에 애착이 떠나면 그 사람을 중이라 하고, 세속에 미련이 없으면 그것을 즐기라 한다(離心愛 是名沙門 不礙世俗 是名出家)'라는 구절처럼 애착도 미련도 없으니 늘 무심하고 무상하다. 그렇게 40여년을 자연속에서 살았다.

게으름은 수행자에게 가장 큰 병

태안사 주지 종효 스님은 "종안 스님이야말로 40여년을 결제도 해제도 없이 수행에만 매진한 선지식"이라며 한없는 존경을 표한다. 종안 스님은 세상 사람들이 상(象)으로만 살기 때문에 참 절사는 밥을 모른다고 했다. 중생심이 앞서 헛것만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늘 근본을 치료해야 하는데 현상만을 놓고 다루고 있다고 했다. 매일 길게는 17시간, 짧게는 12시간을 정진하지만 하루 공양은 한 끼뿐이다. 1종식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스님의 정규다.

"뭇 먹든 이 몸품이 유지될 만큼만 먹으면 되지 더 바랄게 없어요. 절에선 조식 예불만 빠지지 않으면 먹는 거 입는 건 걱정 없으니 먹는 것에 집착 할 일 없습니다."

실제로 종안 스님은 출가 후 누더기처럼 기운 장삼 한 벌과 열주 삿갓 석장 손수 만든 신 외에는 자기 것이라고는 가져본 것이 없다. 그렇게 참선에만 매달렸더니 예사 근기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종안 스님이 정진하는 가운잡 선방 안에는 좌복 두개만 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손때 묻은 죽비하나 냇물 대로 냇물 벽시계 휠어 빠진 누더기 장삼 한 벌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방문을 열면 눈이 시리도록 푸른 언덕과 대숲이 펼쳐지고, 도랑 물소리, 대숲의 사각거리는 일사구 소리까지 천지의 모든 것이 방안 가득 들어온다.

요즘은 재가자들도 참선 공부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 참선 잘하는 법 가르쳐 달랬더니 "내가 뭘 하는 게 있어야지"하고 시침을 때신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심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었다. "정진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사람의 뜻은 없는 데서 밝아집니다(人道無明). 생사 없는 실상

무소유·하루 한끼 공양으로 무위자연의 삶 실천

종안 스님은 종안 스님은 1924년 충남 조치원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공부했던 스님은 유가와 도가의 경전을 읽었지만 경계를 깨닫고 생사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혹의 나이에 불문에 귀의했다. 공주 감사로 출가해 1970년 화엄사 도광 스님을 은사로 득도, 지리산 덕유산 백운산 등지의 토굴과



수행자의 짚신에는 육바라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은 마음비우는 공부를 통해서 자성을 비워내는 겁니다."

늘 묵언을 강조해온 스님은 이날 몇 마디 하시지도 않았지만 기자와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말씀이 많았으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수행의 근본은 이타행

"기자를 만나 이려고 있으니 나도 공부를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껄이니가요. 말없는 게 최고 잘하는 거여. 최고 정진 잘하는 게 말이 없이 묵언하는 거여. 내가 제대로 수행이 됐다면 중생들이 그냥 따릅니다. 그게 중생제도죠.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이 제대로 되면 말하지 않아도 깨친 이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틀립니다. 부처님도 사실은 아무 말씀 안하셨어요. 이런 저런 경전들은 후대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종안 스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공부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수행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이 공부도 선근이 있어야 해요. 선근이 없으면 제아무리 불법이 좋아도 힘든 것이 이 공부라. 불법은 인과법이기 때문에 거쳐 해주는 것은 없어요. 스님이나 속인이나 그저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수행자에게는 게으름 것이 제일 큰 병통이라. 부지런한 것도 그냥 부지런한 것은 소용이 없고, 남을 이롭게 부지런히 행동하고 마음 뉘는 것이 최고지요."

글=조용수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로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현문 스님 (下)

강원생활이란 단순히 감사스님의 강의를 듣고 몇 권의 책을 보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반들간의 관계, 선 후배간의 질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 일상적 의례인 습의, 철학적 사상을 총망라해 배우고 익히는 곳이기도 그렇다. 그것뿐이 아니다. 출가수행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건강관리가 잘 돼야 수행도 잘 하는 법이다. 건강관리법, 즉 운동을 배우는 것도 강연이다. 나는 강원에서 운동을 익혔다. 축구와 배구 탁구 평행봉 역기에서 곤봉 스케이트까지. 해인강원의 축구는 유명하다. 지역은 물론 대구나 부산 조기축구회에서까지 친선게임을 하자고 했고 육사생도들과도 게임이 이루어졌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주시면서 "공부하다 죽어라"고 하셨다. 수행자가 들어야할 말 같아 정말 기렸다.

나는 이일이 있던 뒤로는 후배들이 아프다고 하면, "사람은 언젠가 죽어야 되는 것이니 공부하다 죽어라" 한다. 육신의 쇠락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보람된 일이고...

크든 작든, 귀중하든 사소하든 모든 것에는 시절인연이 있는 법이다. 그 인연이 속시원하게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원인에 따른 조건 변화이기 때문에 인연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익었다가도 성급어지고 성급다가도 익어지니, 처음이 있던 인연의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인 듯하다가도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느낀다.

1995년 내가 서울 봉은사 포교실장 소임을 보고 있을 때다. 은사스님께서 부르시더니 성북동 대원각을 절로 만들려고 하니 일을 봐 주어야 되겠다고 하셨다. 대원각을 법정 스님께 기증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십년 전부터 떠돌았지만,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시 대원

"큰일 욕심 내지말고 공부하다가 죽어라"

각은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법정 스님은 조건부 기증은 거부할 하고 계셨고, 그사이 많은 스님들이 다녀갔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모 교회에서 백지 수표를 제시했다는 말도 있었다.

더욱이 소유자인 김영한 보살의 건강이 나빠 오늘 이러한가 싶으면 또 환없이 기다려야 했다. 당시 김보살은 불자가 아니었다. 백석 시인을 사랑한 분으로 <내 사랑 백석>이란 책을 냈다. 은사스님은 그분을 자주 찾아뵈었다.

나는 그 때 지인들이 뭐하느냐고 물으면 '성북동 비둘기' 집으러 다닌다고 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지만 결국 해내었다. 송광사 중앙분원, 창건주 김영한, 사명 대법사로 사설 사암 등록을 하고 재산 기증 절차를 마쳤다.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은사스님에게 물으니, 스님께서는 법정 스님이나 김영한 보살이 드러내 보이는 것을 싫어하니 그만 두라 하시면서 "누가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큰일은 욕심내지 말고 불국토가 되는데까지만 하자"고 하셨다.

이년 후, 김영한 보살은 법정 스님께 '길상화'라는 법명을 받았고 절 이름도 '길상사'로 바뀌었다.

나는 "누가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큰일은 욕심내지 말고 불국토가 되는데까지만 하자" 이 말씀을 욕심 줄이는 수행의 좌표로 삼고 있다.

■ 기법 아가타 보원사 주지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얏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란세움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영을 새겨 드립니다.

<p>12원</p> <p>달마 사찰영 P. 016-551-5588</p>	<p>관음</p> <p>관음 사찰영 P. 016-551-5588</p>	<p>지장</p> <p>지장 사찰영 P. 016-551-5588</p>	<p>소원성취</p> <p>소원성취 사찰영</p>
<p>달마</p> <p>달마 사찰영 P. 016-551-5588</p>	<p>건강부</p> <p>건강부 사찰영</p>	<p>사고방지</p> <p>사고방지 사찰영</p>	<p>달마카드</p> <p>■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직카드 ■ 규격 : 50mm x 75mm ■ 50장 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p>

<p>연꽃차권기</p> <p>■ 50장 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p>	<p>■ 달마 6호-그림: 35x45cm 액자: 47x64cm</p>	<p>■ 달마 8호-그림: 35x68cm 액자: 47x88cm</p>	<p>■ 달마 10호-그림: 45x75cm 액자: 58x94cm</p>
--	--	--	---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가의 달마 SHOP 051)851-5536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Wellbeing Life

장재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S: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공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